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주된 항목들의 핵심 요점들

(토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8

교회의 지방적인 터

성경: 마 16:18, 18:17, 행 8:1, 13:1, 고전 1:2, 계 1:11

- I. 교회의 터는 오늘날의 혼란스런 상황에서 교회를 알기 위한 열쇠이다. 교회를 알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터를 인식해야 한다 — 마 16:18, 18:17.
- II. 우리는 교회의 터와 교회의 기초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 고전 1:2, 3:10.
 - A. 기초는 건축물의 가장 밑부분이고, 터는 건축물이 놓이는 기반 곧 부지이다.
 - B.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 곧 하나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기초가 필요할 뿐 아니라 터 곧 부지가 필요하다. 이 부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지방이다 — 고전 1:2, 계 1:11.
- III.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터는 그 교회의 상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 고전 1:2, 11-13.
 - A. 상태는 상대적이고 바뀔 수 있지만, 터는 절대적이고 변경될 수 없다.
 - B. 어느 교회에 대한 평가는 결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근거해서는 안 되며, 그 교회의 터에 근거해야 한다.
 - C. 어느 교회가 합당한 교회인지, 참된 교회인지의 여부는 교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터에 달려 있다.
- IV. 교회의 지방적인 터는 기본적으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실행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이다 — 엡 4:4, 고전 1:2, 12:27.
 - A.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과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둘 다 유일하게 하나이다.
 - B. 몸은 우주적이며, 이 우주적인 몸은 한 도시에서 하나의 표현만 갖는다. 따라서 한 도시에는 오직 한 교회만 있어야 한다 — 계 1:11, 행 8:1, 13:1.
 - C. 우주 안에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한 몸이 있으며, 각 지방에는 유일한 한 지방 교회가 있다. 이 유일한 하나가 교회생활의 기본 요소이다.
 1. 유기적인 몸은 나누어지지 않고 나누어질 수 없다. 이 유일한 몸은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삼일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듯이 신성한 하나 안에서, 그리고 신성한 본성과 요소와 본질과 표현과 기능과 증거 안에서 표현된다 — 계 1:11, 요 17:11, 21, 23.
 2. 많은 지방에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은 모두 하나의 신성한 본성과 하나의 신성한 요소와 하나의 신성한 본질과 하나의 신성한 표현과 하나의 신성한 기능과 하나의 신성한 증거를 가지는데, 이는 모든 교회들이 한 몸이기 때문이다 — 계 1:11-12, 20.

V. 신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교회의 터는 세 가지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다.

- A. 교회의 터를 구성하는 첫째 요소는 ‘그 영의 하나’(엡 4:3)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이다. 이 하나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하나이다.
1.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그 영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 지방의 교회에서 실행되는 하나는 반드시 그 영의 움직임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영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
 2. 한 지방의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터는 반드시 그 영께서 집행하시는 하나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하나 안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 B. 교회의 터의 둘째 요소는 한 지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지방이라는 유일한 터이다 — 계 1:11, 행 14:23, 딤후 1:5.
1.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라는 합당한 터가 한 지방에 있는 한 교회의 유일한 터이다 — 계 1:11.
 2. 신약은 우주적인 교회, 곧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표현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모두가 각각 한 도시에 위치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분명한 그림을 제시한다 — 행 8:1, 13:1, 롬 16:1, 고전 1:2, 계 1:4, 11.
 - a. 교회들은 한 도시를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의 경계와 터로 취함으로써 서로 다른 도시에 세워진다.
 - b.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영역과 한계는 그 교회가 위치한 도시의 영역과 한계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 계 1:11, 행 14:23, 딤후 1:5.
 3. 교회는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구성되지만, 이 땅에서 많은 지방들에 존재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본성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주적이지만, 실행에 있어서 교회는 명확한 장소 안에서 지방적이다 — 고전 1:2.
- C. 교회의 터의 셋째 요소는 하나의 영의 실재, 곧 그 영의 실재인데, 그 영은 신성한 삼일성의 살아 있는 실재이다 — 요일 5:6, 요 16:13.
1. 바로 이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실지적이고 살아 있게 된다.
 2. 바로 이 영에 의해 지방이라는 터는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적용된다.
 3. 바로 이 영에 의해 교회의 진정한 터가 삼일 하나님과 연결된다 — 엡 4:3-6.

VI. 우리는 교회의 터, 곧 하나라는 진정한 터가 내재적으로 생명과 연관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시 133:1, 3, 36:8-9.

- A. 하나님은 교회생활 안에서 하나 안에 함께 거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명하셨다 — 요 3:16, 엡 4:18, 시 133:1, 3.
- B. 생명은 하나의 본질이다. 생명이 없다면 하나가 있을 수 없다 — 요 10:10하, 16하.
- C.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 곧 성경 전체에 계시된 위대한 하나는 오직 생명에 의해서만 보존될 수 있다.
- D. 하나는 오직 생명에 의해,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 — 롬 8:2, 6, 10-11, 12:4-5, 15:6.

VII.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앞장서서 교회의 유일한 터, 곧 하나라는 진정한 터 위에 서 있어야 한다 — 마 16:18, 18:17.

- A.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와 표현과 실행을 위한 고린도라는 지방을 보여 준다. 그러한 지방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지방적인 터가 되며, 바로 이 터 위에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각각 건축된다. 따라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터 위에 건축되었다.
- B. 초기의 교회생활의 실행은 한 도시에 한 교회를 갖는 실행, 곧 한 도시에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는 실행이었다. 어느 도시에도 하나를 초과하는 교회가 없었다 — 행 8:1, 13:1, 계 1:11.
 - 1. 이와 같이, 지방에 있는 교회는 길이나 구역이 아닌, 도시를 단위로 한다.
 - 2.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관할 지역은 그 교회가 위치한 도시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즉 그 도시의 경계보다 더 크거나 더 작아서는 안 된다.
 - 3. 그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그 도시 안에서 하나의 유일한 지방 교회를 구성해야 한다.
- C.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하나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라는 터 위에서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엡 4:3, 고전 1:2.
 - 1. 진정한 하나가 곧 교회의 터이다.
 - 2. 주님께서 이 소중한 하나에 관해 더 많은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교회의 터의 정의

기초가 아니라 대지임

우리가 여기서 교회의 터를 말할 때 사용하는 ‘터’라는 용어에는 건물의 기초와 같은, ‘기초’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여기에는 건물의 기초를 놓는 대지와 같은, ‘대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교회의 터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신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교회의 터는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

교회의 터의 첫째 요소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인데, 이것은 “그 영의 하나”(엡 4:3) 라고 불린다. 이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그 하나이다. 이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의 연합의 하나이다. 이 하나는 아버지의 인격을 지칭하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는데(요 17:6, 11), 아버지의 이름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 심지어 이 하나는 진리인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의한 거룩하게 함을 통해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요 17:14-21). 이 하나는 최종적으로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신성한 영광 안에 있다(요 17:22-24). 이러한 하나는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생명의 영에 의해 거듭났을 때 그들의 영 안으로 분배되었다. 이 하나가 교회의 터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지방 교회가 갖는 지방이라는 유일한 터

교회의 터의 둘째 요소는 지방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지방이라는 유일한 터이다. 신약은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인 우주적인 교회의 표현으로서 각각의 도시에 하나씩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행 8:1), 안디옥에 있는 교회(행 13:1),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롬 16:1), 고린도에 있는 교회(고전 1:2) 그리고 아시아의 일곱 도시에 있는 일곱 교회(계 1:4, 11)를 본다. 한 교회가 그 안에 존재하는 각 도시는 그 교회의 경계이며, 그 교회의 지방적인 터이다. 이처럼 지방이라는 유일한 터는 침례교나 장로교나 루터교나 감리교나 성공회 같은 여러 교파들이 서로 분열된 것처럼, 교회가 서로 다른 터가 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문제들에 의해 분열되지 않도록 지켜 준다.

한 영의 실재

교회의 터의 셋째 요소는 지방 교회의 유일한 터인 지방 위에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를 표현하는 한 영의 실재이다. 간단히 말해서, 교회의 터의 셋째 요소는 신성한 삼일성의 살아 있는 실재 이신(요일 5:6, 요 16:13) 그 영의 실재이다. 바로 이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실재가 되고 살아 있게 된다. 또한 이 영을 통해서 지방이라는 터가 법률적으로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적용된다. 또한 오직 이 영에 의해서 교회의 참된 터가 삼일 하나님과 연결된다(엡 4:3-6).

교회의 참된 터는 실행에 있어서 교회의 참된 하나를 지켜 줌

위에서 정의한 교회의 터는 실행에 있어서 지방적으로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어떠한 분열이 없이 교회의 참된 하나를 지켜 준다(엡 4:3).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지체들 간에 있는 분열과 혼돈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믿는 이들의 참된 교통의 근거

위에서 정의한 교회의 터는 또한 모든 믿는 이들의 참되고 합당한 교통의 근거이기도 하다. 이 교통은 신성한 계시에서 '사도들의 교통'(행 2:42)이라고 불리며,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는 교통이다(요일 1:1-3). 이것이 지방적으로나 우주적으로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분열적인 터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들 간의 교통 또한 많은 분열적인 교통으로 나뉘고 말았다. 모든 분열적인 교통에서 구출받는 길은 교회의 유일하고 참되며 합당한 터를 취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교리나 규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고 실지적인 필요이다. *(주의 회복에 관한 간략한 소개, 41-44쪽)*

각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유일한 터

먼저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유일한 터를 보기 원한다(고전 1:1-2, 9, 10-13, 3:3-4).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어야 한다. 교회에 다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교회의 내용을 가리킨다.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의 근원에 있다. 근원은 요소를 가진다. 본질적으로, 요소 안에는 본질이 있다. 교회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와 표현과 실행을 위한 고린도라는 지방을 보여 준다. 이러한 지방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지방적인 터가 된다. 교회들은 각각 이 지방적인 터 위에 건축된다(행 8:1, 13:1, 계 1:11). 교회의 존재와 표현과 실행은 교회에 참으로 한 장소가 필요하고, 신약에 따르면 그 장소가 지방이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에 건축되었다. 아테네에 있는 교회는 아테네 시라는 터 위에 건축된다. 뉴욕에 있는 교회는 뉴욕 시라는 터 위에 건축된다. 그러므로 지방은 자연적으로 교회의 터가 된다. 위치만 니 형제님은 지방이라는 터 위에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다. 지구상에 어느 곳 이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한다. 만일 지방의 합당한 제한이 없다면 교회를 세우는 데 어떤 제한도 없게 된다. 오늘날 서부 캘리포니아에는 대만 복음 교회라고 불리는 한 교회가 있다. 이곳의 믿는 이들은 그들의 터로 대만을 사용했다. 나는 중국 옌타이라는 도시에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옌타이에는 성공회가 있었다. 사람들은 아주 쉽게 교회를 세운다. 오늘날 식당을 개업하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쉽다. 모든 교파들은 남 침례교, 장로교, 루터교를 포함한 분열적인 터들을 가지고 있다.

만일 우리가 한 도시에 한 교회라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유지할 수 있다. 어느 도시에 온 믿는 이들은 그 도시에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만일 내가 도쿄에 간다면, 나는 도쿄에 있는 교회에 속해야 한다. 만일 내가 런던에 간다면, 나는 런던에 있는 교회에 가야 한다. 만일 내가 델러스로 간다면, 나는 델러스에 있는 교회의 집회에 가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분열은 없을 것이다. 성경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모여야 하는가의 모형을 세웠다. 그리스도인들의 처음 모임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사도 행전 8장 1절은 그 모임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불렀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이지만 그 도시에 단지 한 교회만 있었다. 비록 한 도시에 한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한 장소에서만 모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도시가 교회의 유일한 지방적인 터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름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이들, 곧 부름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골격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다(고전 1:2하). 삼일 하나님은 교회의 내용이신데, 그 영은 본질이시고 주님은 요소이시며 아버지는 근원이시다. 교회의 골격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이들, 곧 진정한 믿는 이들, 참된 성도들이다. 교회는 반드시 지방적인 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하고 성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함께 보내졌다. 이 서신의 수신인은 고린도의 성도들뿐 아니라 각처에 있는 이들도 포함한다(고전 1:2하).

심지어 오늘날 우리도 이 책의 수신인이다. 이 서신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쓰였고, 여러 세대를 거쳐 수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혀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이 됨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이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린도라는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몫이시고 또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교통(누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몫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믿는 이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전 1:2하, 9). 동일한 그리스도가 단지 한 지방에 있는 교회를 위한 몫이실 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위한 몫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하신 공동 몫이시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몫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몫이시고, 우리는 중심이신 그리스도의 누림과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다.

성도들 사이의 분열은 사도에 의해 유죄 판결됨

성도들 사이에 분열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대표 권위인 사도에 의해 유죄 판결되었다(고전 1:10-13).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아볼로에게, 또 다른 이들은 게바에게 속했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네 무리로 나뉘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마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에게 몇 명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게바를 위해, 아볼로를 위해, 바울을 위해,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 한 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게바, 아볼로, 바울,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한 교통은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의 교통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분열은 그리스도의 대표 권위인 사도에 의해 유죄 판결받았다.(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95-98쪽)

생명에 의해 보존되는 ‘하나’

창세기 2장 8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라고 말한다. 동산은 생명의 장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 사람을 생명이 풍성한 장소에 두셨다. 이 에덴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라 불리는 나무가 있었다. 동산이 생명의 장소일 뿐 아니라, 이 장소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창조자께서 사람을 그런 환경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근원으로, 또한 생명의 공급으로 사람에게 제시하셨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 결과 사람은 여러 민족으로 분열되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은 바벨에서 여러 민족으로 분열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탄에게 유혹되어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였다. 바벨은 곧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요, 산물이었다. 이것은 생명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조심히야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생명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분열, 즉 바벨로 끝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볼 것이지만, 바벨에서 바빌론으로, 바빌론에서 큰 성 바빌론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있다. 구약의 처음 부분에 바벨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 바빌론이 있다. 신약의 마지막 부분에는 큰 성 바빌론이 있다. 바벨과 바빌론과 큰 성 바빌론은 모두 지식나무의 근원에서 온다. 이것은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분열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생명은 ‘하나’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

나', 즉 성경 가운데 전체적으로 계시된 위대한 '하나'는 오직 생명에 의해 보존될 수 있다. 생명이 없으면 하나가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의 몸은 이 점을 설명해 준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모든 지체들은 하나의 생명, 즉 몸의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모두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몸의 '하나'는 바로 그 생명이다. 그러나 시체가 매장될 때,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해체된다. 생명이 육신의 몸에서 떠날 때 육신의 지체들은 분리된다. 이것은 사람의 육신의 몸이 소유하는 '하나'의 본질은 육신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생명이 없으면 '하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몸'이 아니라 시체이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설명일 뿐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이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11절)을 대표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래 하나의 살아 있는 '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분열되고 흩어진 후 마른 뼈들이 되었고 따로따로 분리되었다. 생명이 뼈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의 본질은 상실되었으며 뼈들은 분리되었다. 이것은 생명이 '하나'의 본질임을 소극적인 면에서 계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의 단체적인 사람은 수많은 후손들을 낳도록 되어 있었다. 이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로 유지될 수 있는가? 교육에 의해서인가? 어떤 권력에 의해서인가? 조직에 의해서인가? 생명에 의해서만, 생명 안에서만, 생명이 있을 때에만 하나가 유지될 수 있다.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의 후손들은 수가 많아졌을지라도 모두 하나로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분열의 본질이 그 사람 안에 주입되어 그의 후손들은 분열되었다.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의 본질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것은 분열은 생명 이외의 다른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결과임을 가리킨다. 이 요소가 불화와 분열의 요인이요, 근원이요, 본질이다. 반대로 하나의 본질은 생명이다. 오직 생명만이 우리를 하나로 유지할 수 있다. (참 *하나의 입장*, 30-33쪽)